

새해 문화재 복원·지킴이 활동 확대된다

국회 입법 및 문화재청의 활성화 계획 이어져

2014년 1월 8일, 한국의 문화유산 보호의 한 획을 긋는 행사가 진행됐다. 문화재청의 '한문화재 한 지킴이' 사업 일환으로 외국계 게임업체인 라이엇게임즈가 미국 버지니아주 허미티지 박물관이 소장한 조선시대 불화를 환수한 것이다. 학계에서는 우리 문화재를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환수 성과를 이뤘다는 점과 외국계 기업이 문화재 반환 사업에 참여한 최초의 사례란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새해에는 이러한 문화재 환수와 복원 관련 사업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보다 활발히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구급 30일 2014년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성과 자료를 공개하고, 2015년 사업확대 계획을 밝혔다.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사업은 2005년부터 개인과 가족, NGO와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유산 보호 국민참여운동이다. 불교계에서는 파라미터청소년협회와 대한불교청년회도 포함돼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문화재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 문화 한 지킴이' 사업은 10년간 50개 기업이 참여해 160억 여원의 후원과 연간 4만명

의 봉사자가 참여했다. 2014년만해도 총 17억 8000만원의 후원과 4500명이 자원 봉사를 진행했다.

문화재청은 "새해에는 대국민 서비스인 문화유산 3.0의 본격 실시와 함께 한문화재 한지킴이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민관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불교계와도 적극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유산 3.0 등 사업 확대

불교계와 협력모델 구축 예정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 발의도

불교문화재를 비롯한 각종 문화유산의 관리와 복원이 체계화되는 상황에서 입법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여야 의원 48명과 함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경주지역은 황룡사를 비롯해 신라동궁과 월지 등 정비대상이 산적한 상황으로



진주중학교 중앙파라미터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학생들의 한문화재 한지킴이 활동 모습. 문화재 및 문화유산을 활용한 3.0 계획에 따라, 올해에는 문화재 보존 및 활용 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신라왕경 유적의 복원과 정비'를 위한 대통령 소속 정비위원회 구성과 함께 연구·지원 재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최근 '고도보존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문화재 보존에 대한 제도 마련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 법안은 고도보존 육성과

관련한 중앙심의위원회, 지역심의위원회에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할 전문위원을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전통건축의 원형을 보존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용문사 대웅전·파계사 원통전 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구급 29일 '남해 용문사 대웅전'과 '대구 파계사 원통전'을 보물 제1849호와 제1850호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남해 용문사 대웅전은 평면 구성과 공포의 표현기법, 상부 가구와 단집 등의 장엄이 화려해 18세기 이후 건립된 사찰 주불전의 특징적 건축 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남해안 지역의 건축 경향이 동쪽 지역으로 확장되어 발전하는 양식적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어 건축사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또, "대구 파계사 원통전은 고식의 기단 등 17~18세기의 건물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맞배지붕 건물의 전형적인 특징을



남해 용문사 대웅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식의 원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유물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 건축·역사·학술적으로 가치가 크다"고 보물 지정 이유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울주 영축사지, 가람배치 윤곽 드러나

울산박물관(관장 신광섭)은 구급 23일 울주군 울리 영축사지(울산시 기념물 제24호)에 대한 3차 학술발굴조사 결과 발표회서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강당지(講堂址)를 확인해 전체 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영축사(靈鷲寺)는 <삼국유사>에 신라 신문왕대(683년) 창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찰이다. 이번 강당지 확인으로 영축사는 강당과 금당(金堂, 대웅전), 동·서

탑, 중문(中門), 회랑(回廊)으로 이뤄졌다. 강당지는 금당, 중문과 함께 동일한 남북 중심축에 있으며, 금당지 중심에서 북쪽으로 26.9m 떨어져 있다. 강당지 구조는 정면 7칸, 측면 3칸으로, 규모는 동서 20.7m, 남북 8.9m로 측정됐다. 강당지 동쪽에는 정면 1칸, 측면 1칸 구조의 부속 건물지 2동이 동서 방향으로 나란히 확인됐다.

노덕현 기자

“조선 중기 이후 부산 사찰, 승영 기능 지녀”

서치상 교수, <부산의 불교건축>서 밝혀… '임진왜란 영향'

보물 제434호 범어사 대웅전(1717년 중수), 보물 제1771호인 장안사 대웅전(1657년 중수), 운수사 대웅전(1655년 중수). 이들 사찰의 공통점을 무엇일까? 조선 중기 이후 건립된 부산지역 불교건축물들이 승영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구조를 크게 바꾼다. 통일신라 때까지 도성 안이나 교외의 평탄지에 건립되던 평지가랑과는 달리 배후의 산세를 따라 내려오는 경사지를 몇 단의 평탄지로 조성한 터에 세워졌다.

서치상 부산대 건축학과 교수(사진)는 <부산의 불교건축>에서 "부산의 불교문화, 특히 불교건축은 임진왜란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부산에서 본사를 이루고 있는 범어사를 비롯한 지역 사찰은 왜구의 침탈이 잦았던 곳으로 비보(裨補) 사찰을 지어 왜구의 침입을 막으려는 승영사찰(僧營寺刹)의 전통이 내려오고 있다. 금정산성의 국정사 해월사 등 말사에도 호국불교의 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부산 지역에는 조선 전기의 목조건축이 전무한데 이는 왜병의 방화 때문"이라며 "조선 중기 이후 동남 해안 지역의 불전 건축은 더욱 승영사찰의 역할을 감당한 건축 방식을 띠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범어사는 1658년 대웅전 중수와 1694년 비로전 중수에서 가

람구조는 중층의 불교세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방어에 유리한 이점을 지닌다"며 "이러한 불사는 전란 때 입은 상처를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치유하고자 했던 이 땅 민초들의 간절한 염원이 아니고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덕현 기자

우리 시대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묻는다

KBS '다큐 3일' 범어사 '동안거 72시간' 방영 화제



'다큐 3일'은 범어사 스님들의 동안거 중 3일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물었다.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매순간 행복하게 살기를 염원한다. 스스로를 달래며 매일 열심히 달리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간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지금 당장' 행복하지 않은 걸까?

KBS '다큐 3일'이 동안거를 시작한 부산 범어사를 찾았다. "당신 행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구급 28일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스님들의 안거 생활을 3일간 따라가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는다.

동안거 90일 동안 일체의 외부출입을 끊고, 공양시간과 이동시간, 수면시간 외에는 참선수행에 전념하며 철저하게 규율과 시간표대로만 움직인다. 안거를 알리는 신호탄은 다음 안거 발우공양. 그 중에서도 강원 스님들의 안거는 눈길을 끈다.

처음으로 맞는 '안거' 생활에 설렘 반, 두려움 반인 심정. 행여 어른 스님들 앞에서 실수할세라 틈만 나면 발우공양을 연습하며 만전을 기하기도 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2시 30분에 기상해 목탁을 치며 경내를 돌아야 하는 도량석, 새벽 강풍 속에서도 곱은 손을 펴가며 제 시간을 엄수해야 하는 법고와 범종 치기 등 강원 스님들에게 주어지는 소임은 스스로의 의지와 인내를 시험하는 일들이 많다.

제작진은 스님들에게 또 사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끊임없이 묻는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오늘을 희생하면 내일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일까?

정혜숙 기자

금강대 금강아카데미, 티벳어 강좌 개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10일 과정으로 금강아카데미 제7회 불교고전강좌 '티벳어 레 티벳어'를 개최한다.

티벳어 강좌는 초급반과 강독반으로 나눠 진행되며 초급반은 매일 오전 9시 차상엽 금강대 HK교수의 지도하에 'Michael Hahn의 문법서' 강좌가, 강독반은 오후 2시 김성철 금강대HK교수의 지도하에

'무성석 섭대승론 소지의분 역주' 강좌가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전화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1월 30일까지다.

불교문화연구소 측은 "티벳 불교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히 확산되고 있는 불교문화의 하나"라며 "티벳어 학습은 티벳불교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041)731-3628

노덕현 기자

겨울방학 맞아 풍경소리 39집 발표

좋은 벗 풍경소리가 찬불동요 창작곡 '풍경소리 39집'을 발표했다. 풍경소리 39집은 추운 날씨에도 신나고 즐겁게 겨울놀이하며 봄을 기다리는 천진분들을 노래한 '추워요', 사랑과 정성을 다해 보살펴주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부모님의 사랑', 새하얀 눈처럼 산과 들 초목처럼 맑고 푸르른 지혜와 꿈을 찾아가는 부처님 계시는 '도솔천 이야기' 등 총 6곡의 노래와 반주음악(MR)이 담겼다.

풍경소리는 "새하얀 눈처럼 맑은 마음, 산과 들 초목처럼 푸른 마음이 가득한 부처님 나라 도솔천으로 천진분들의 꿈과



지혜를 담아 찾아가는 겨울방학이 되길 빌어본다"며 앨범 발매의 취지를 전했다. '풍경소리 찬불동요 창작곡집'은 지난 1994년 1집 발표를 시작으로 매년 두 장씩 여름·겨울 불교학교를 위해 발표해 온 좋은 벗 풍경소리의 작품집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세계불교가 하나로 뭉쳐야 부처님 세상을 이룰 수 있다
지옥같은 어둔 세상을 밝혀주는 광명의 불빛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문화체육관광부 2013-82호, 고유번호 101-82-23205.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메인 세계불교법왕청.com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종교법인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
WORLD BUDDHIST DHARMA-KING
Buddhist monk King
Hinayana Buddhism
Buddhist monk King
Mahayanist Buddhism
each nation(Country representatives) Buddhist monk King

推戴委員長 대승정 목탁 推戴委 副委員長 불원

세계불교법왕청 直屬 團體 국제불교지도자협회

大韓佛敎108宗正聯合會 - 총재 헤월, 회장 헤선, 수석 헌덕 大韓佛敎 宗團 總聯合協議會 - 총재 불원, 부총재 청광, 회장 법상, 수석 청운 高僧長老團 - 총재 성각, 회장 정오, 수석 元老長老團 - 총재 혜승, 회장 도연, 수석 대경 世界佛敎 考試委員會 - 총재 남륜, 회장 고산 제수석 돈조, 제2수석 성군 大韓佛敎 大宗師 聯合協議會 - 총재 박해정, 회장 제성, 수석 도암 奉行委員長 - 조항 企劃本部長 - 헌성 組織委員長 - 대봉 禮敬儀典院長 - 구암

중앙정부 각 부 장관 (부수)

內閣 首班 內閣 副總理 / 女性分科委員會 特命全權 大使 在家 分科 委員會

불원 조항 혜승 대봉 헤선 진성 대풍 법상 정오 헤월 성각 도암 도경 도명 도일 도암 도연 돈조 제성 혜정 무령 무산 구암 남륜 능허 지현 도형 동월 법광 보명 원광 청운 고산 석담 선명 영각 성군 송몽 심오 혜원 법성 송운 연아 상운 청광 대연 헌담 헌덕 법주 범승 법지 법천 헌덕2 혜상 법상2 / 기획1실장 도원 기획2실장 경덕

국내외에서 봉사할 불자 붓다 봉사단 여성분과위원 수시로 모집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대표전화 02)0733-5665 H.P 011-229-6061 팩스 : 02)733-5671